

ART & SPACE

MICHELLE LOPEZ



Smoke Cloud, 2014



Smoke Cloud, 2014

Michelle Lopez: Michelle Lopez received her MFA from the School of Visual Arts, New York and BA from Barnard College,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Recent solo exhibitions include; The Aldrich Museum of Contemporary Art, Connecticut, curated by Amy Smith-Stewart, 2014; Galerie Christophe Gaillard, Paris, 2012; Simon Preston, New York, 2011 & 2009; ART, Los Angeles, 2008, among others. Michelle Lopez is a faculty member at the Yale School of Art in the department of Sculpture. She lives and works in Brooklyn, New York and Guilford, CT.

Liz Kwon: In the current exhibition 'Banner Year' in the Simon Preston gallery, major themes that you have been exploring seem to be continued. Could you explain the meaning of the title and the overall concept of the exhibition?

Michelle Lopez: I've been interested in how we culturally and politically use flags to form identity. 'Banner Year' in colloquial terms, expresses the idea of a prosperous year and I liked how the expression had the flag reference in there. When we are powerful, we put out our banners to remind people of the fact. Maybe it's only an American thing.

The <Halyard> Installation in the show tries to address issues of nationalism and illusions of power by further breaking down the iconography of a 'flag'. I wanted to build everything surrounding a flag-the pole, the rope movement, the sound of the flag flapping sculpturally through the space. I also liked the implied violent gesture of the pole piercing through the middle of the gallery space. All of these elements build the artifice of the 'pomp and circumstance' of an important figure or event. But then without the actual flag, the absence creates an experience of impotence, and even contradiction. Everything is really just 'smoke and mirrors', which leads me to talk about the <Smoke Cloud> work, which were partly inspired by images of the recent Ferguson riots of people in protest standing in the middle of tear gas clouds.

권이선: 현재 사이먼 프레스톤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성공적인 한 해'는 이전작품과 소재의 차이는 있어도 주제적으로 연장되어 보인다. 전시제목의 의미와 전체적인 콘셉트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미셸 로페즈: 나는 사람들이 정체성 형성을 위해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기(旗)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성공적인 한 해'는 번창한 연도에 대해 개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나는 깃발이 내포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흥미로웠다. 보통 우리가 강하고 영향력 있을 때, 현수막을 걸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데, 이는 아마도 미국적인 것일 지도 모른다.

깃발을 달고 내릴 때 쓰는 밧줄인 <헬야드> 설치작품은 깃발의 상징성을 무너뜨림으로 국가주의와 권력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나는 장대, 밧줄의 움직임, 펄럭이는 소리 등 깃발 주변에 관한 모든 것을 공간 안에 조각적으로 만들길 원했으며, 갤러리 공간 한가운데를 뚫어 세운 막대기를 통해 폭력적인 의미를 함축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중요한 행사에서 진행되는 거창한 의식의 책략을 세워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깃발이 없다면 그 부재가 모순을 만든다. 모든 것은 단지 연기와 거울에 관한 것이고, 이는 작품 <연기 구름>에 관한 것으로 이어진다. 이 작업은 최근 퍼거슨 사태에서 사람들이 가스 구름 가운데 서서 시위하는 이미지에서 부분적으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



미셸 로페즈 : 미셸 로페즈는 버나드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에서 학사과정을 마쳤으며, 뉴욕의 시각예술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최근 그녀는 코네티컷에 있는 알드리치 현대 미술관에서 에이미 스미스 스투어트가 기획한 전시를 비롯해 2012년 파리 크리스토프 길야드 갤러리, 2009 & 2011 뉴욕 사이먼 프레스턴 갤러리, 2008 LA 아트 갤러리 등에서 단독 전시회를 열었다. 그녀는 예일대학의 미술학부 조소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 뉴욕의 브루클린과 코네티컷 주의 길퍼드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작업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Blue Angel, 2013



Vertical Neck Exhibition, 2011



Vertical Neck Exhibition, 2011

Liz Kwon : It seems like the glass-sculpture work <Smoke Cloud> required technological study and consideration for the smoke effect. What was the process of producing the work?

Michelle Lopez : The process required a lot of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I had been thinking about being in the wake of an explosion (i.e. a plane crash). There is always a kind of beauty: an ephemeral, smoke cloud that rises from the ashes. I wanted to capture that moment in a material, and I wasn't sure if it was possible but just went with blind intuition. I had been experimenting with the idea for years with ill effect and the wrong materials. Finally after working with PPG Glass Industries and Technologies and my own experimentation and accidents, I finally got the results by contaminating silver nitrate as it was being mirrored onto the glass surface.

I know I wanted to work with mirrors because I liked the idea of reflection and the idea that the work could disappear and reappear at different angles and depending on the site. But the end results happened over an endless amount of rejects, good note taking, and also working with chemicals that went against common industrial applications.

Liz Kwon : What are some difficulties you experienced while you worked on the large-scale outdoor work <Blue Angel II>?

Michelle Lopez : Probably trying to get the larger piece (12 meter tall) feel as vulnerable as the original ones (3 meter in height). The riveting with a rivet gun made my shoulder hurt and we did it outdoors in the Miami rain. Also it was a challenge to make sure the piece could handle the weather wind conditions, so we worked at length with architects and a structural engineer. Overall, it certainly was an excellent experience that engaged with the public in a more comprehensive way. One of the advantages of the piece being outdoor was that the work reflected its surrounding. So when it was sunny, looking at the piece was blinding. When it was night, the piece was jet black.

권이선 : 유리 조각 작품인 <연기 구름>은 연기 효과를 위해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했을 것 같다. 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은 어떠했나?

미셸 로페즈 : 이 작업 과정은 많은 연구와 실험을 요구한다. 나는 비행기 폭발의 여파 가운데에 있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에는 어떠한 미학이 있다. 이는 잿더미로부터 올라오는 일시적이고 자욱한 구름 같은 것이다. 나는 그 순간을 물질로 포착하고 싶었으며, 가능할지 확신은 없었지만 맹목적인 직관만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아이디어로 수년간 잘못된 재료와 효과로 실험했었다. 결국, PPG글라스 산업과 기술을 동원해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 유리 표면에 거울처럼 반사되는 오염된 질산은의 효과를 얻었다. 나는 거울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는 반사라는 개념을 좋아하며 다른 각도나 장소에 따라 사라질 수도 있고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생각이 좋았기 때문이다. <연기 구름>은 많은 실패작을 거쳐, 산업용으로 쓰이는 화학품으로 작업한 끝에 완성된 결과물이다.

권이선 : 대구모 공공 미술 설치작 <블루 엔젤 II> 을 작업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미셸 로페즈 : 12m 높이로 제작된 큰 크기의 작품에서도 원래 3m 작품에서처럼 연약하고 민감한 느낌을 주려 노력했다. 마이애미의 밖에서 진행된 이 작품은 리벳건으로 리벳을 박는 작업 때문에 어깨가 아팠고, 작품이 날씨가 바람과 같은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도전적이어서 건축가, 엔지니어와 함께 작업을 진행했다. 대체로 이 프로젝트는 종합적인 방식 안에서 공공의 관계를 맺는 좋은 경험이었다. 작품이 실외에 설치됐을 때의 장점 중의 하나는 작품이 주변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날씨가 좋을 때 작품을 보면 눈이 부실 정도로 강하게 빛이 반사되고, 밤이 되면 조각이 칠흑같이 어두워진다.

ART & SPACE

MICHELLE LOPEZ



Exhibition 'Violent Bear it Away', 2009



Your Board, 2009

Flag Series, 2014



Southern Trees, 2009

Liz Kwon : How do you explore the form of crushing, creasing, and wilting of steel? Do you experiment in your studio with the steel in same scale as your work?

Michelle Lopez : With the steel, I have to psychologically approach it as a piece of paper even though the material is quite rigid. Second, I have to remove my brain from the studio by meditating. Then I kind of just dive physically into the piece to crumple it, and then see what happens. If I'm too present in the room in a bad way, the work ends up not being that great and I throw it away. So there is a lot of risk involved for me, and so a lot of the energy is getting over the idea of the risk.

Liz Kwon : I would like to hear about your works completed during your graduate study, or works completed before 9/11, which is a crucial point in your artistic career.

Michelle Lopez : Well the ideas and spirit were essentially the same: I was interested in experimenting with a broad range of non-art materials, mainly industrial ones. I was also interested in creating work that was equally conceptual and technically and formally evolved for the concept. So I experimented a lot in grad school as I do now. I can't say I would want to show you images of the work from 20 years ago. I was young, and more concerned with how people perceived my work. It took me a long time to figure out how to arrive at the work that I've done for the past few years. And I hope it will continue to move forward and evolve. I think I'm just beginning.

Liz Kwon : How do social phenomena you encounter by living in New York affect your works? Also, how will those influence your works in future?

Michelle Lopez : New York is inspiring. It's got my heart and my history and community. But I'm more interested in a larger cultural dialogue that isn't limited to NY. Often I look for the mundane or the uncanny and try to undress such social phenomena by intervening in some alchemical way. I'm going the Manila and Tokyo soon and eager to see how those cities will inspire.

Interviewer : Liz Yisun Kwon / Curator, Editor : Kim Eunji *** Image Courtesy of Simon

Preston Gallery and the Artist

권이선 : 철을 구부리고, 주름을 만드는 등 철의 형태를 어떻게 연구하는가? 스튜디오에서 실제 작업의 크기로 실험을 해보기도 하는가?

미셸 로페즈 : 철이 뻣뻣한 재료 일지라도 처음에는 한 장의 종이라고 생각하며 접근하고, 스튜디오에서 명상을 통해 머리를 비운다. 그 후, 나는 온몸으로 조각을 구부리며 작업을 진행하는데, 만약 좋지 않은 방식으로 오래 유지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쁘게 나오고 결국 버리게 된다. 이 때문에 내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른 위험 요소가 있지만, 그러한 위험 부담도 넘어줄 정도의 힘이 스튜디오에 넘친다.

권이선 : 대학원 다닐 시절 완성한 작품 혹은 작업 주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911테러 이전의 작품은 어떤지 궁금하다.

미셸 로페즈 :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분위기는 똑같다. 넓은 의미에서 비전통적인 미술 재료이고, 대부분 산업적인 재료로 실험해 보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나는 개념적인 작업을 좋아하며, 그 개념이 기술적으로 형태가 동시에 발전하는 작업에 흥미가 있어 대학원 재학 시절에도 지금까지나 실험을 많이 했다. 20년전의 작업을 보여주는 것은 어려운데, 그때 나는 어렵고 사람들이 나의 작업을 어떻게 인식할까에 대해 더 많은 걱정을 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해왔던 작업에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앞으로 작업이 계속 나아가고 발전하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지금이 단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권이선 : 뉴욕에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사회 현상은 작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가? 또한, 그것은 앞으로의 작업에 어떻게 나타날지 이야기해줄 수 있는가?

미셸 로페즈 : 뉴욕은 매우 고무적이고, 그곳은 나의 감성, 과거, 그리고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뉴욕에 한정 짓지 않고 더 넓은 문화적 관계에 관심이 있다. 종종 나는 일상적이거나 이상한 것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사회 현상에 희한한 방식으로 개입하면서 그것에 조명하고 파악하려 노력한다. 나는 곧 마닐라와 도쿄로 떠나는데, 그 도시는 또 어떤 영감을 줄지 기대가 된다. 인터뷰 : 권이선 / 큐레이터, 편집 : 김은지 기자 ***저작권은 사이먼 프레스톤 갤러리와 작가에 있다.